

바다의 신화를 문자·기호로 재해석하다

김25 작가 개인전 ‘파도를 넘다’

29일부터 부산 스페이스 원지서 ‘생성과 소멸’ 떠올린 최신 연작 “창고 공간서 만나는 바다전시”

읽히지 않는 텍스트로 재해석한 바다 그림들이 오래된 신화를 오늘의 시선으로 호명한다. 더 이상 지도 위의 실체가 아닌, 해독이 불가능한 언어의 파도로, 끝없이 미끄러지는 의미의 스펙트럼으로 시선을 끌어들인다.

김25(김이오) 작가의 개인전 ‘WAVE: Castaspell 파도를 넘다’가 부산광역시 영도의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원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의 최신작들을 선

보이는 자리로 문자와 기호를 매개로 바다를 신화·철학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작품들로 채워진다. 걱정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성으로 풀어낸 그림들은 각기 다른 시공간 속에서 하늘과 조우하며 찬란한 빛과 음영의 아름다운 대비를 이룬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언어의 기본 단위인 문자를 해체하고, 반복과 왜곡, 중첩이라는 시각적 변주로 바다를 ‘읽히지 않는 언어’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림 곳곳에 투영된 창세기 구절들은 화면 위에서 읽히기를 거부하고, 대신 파동처럼 흐른다.

김 작가는 1963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동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그는 8년 전부터 바다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노아의 방주’



김25(김이오) 작 ‘노아의 방주’.

연작은 지난 2020년부터 작업했다고 한다. 작가는 바다를 그리기 시작한 초기에는 바다의 연속성과 시적 감성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 들어 ‘생성과 소멸’과 맞닿은 지점을 더욱 탐구하게 됐다고 전한다. 이는 그가 ‘노아의 방주’를 그리기 결심하고 작품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창세기 구절들로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으

로 알려졌다. 구약 성경 속 방주를 문자 구조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문명이 파멸과 구원의 경계 위에서 발화되는 공간임을 상징한다. 문자로 쌓아올린 방주는 캔버스 위를 부유하는 동시에 파도에 맞서서 있는 상징이 된다.

관객들은 문자 자체가 물결을 이루는 장면을 통해 의미의 층위와 감각의 흐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강선학 비평가는 이 작품에 대해 “물결 아래 자욱하게 드러나는 이전 시기의 형상은 뚜렷함을 지우는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다. 김 작가의 회화가 선형적 시간에서 벗어나 전체로서의 시간, 곧 현재와 과거, 미래가 동시에 얹힌 미학적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영도구 앞바다가 보이는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려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 영도의 과거 산업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 장소는 기억 위에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잊혀진 문명의 잔해 속에서 떠오르는 기호처럼, 구조적 거대함과 시각적 밀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전시 작품들과의 유기적인 긴장을 극대화할 공간인 셈이다.

전시장 내부는 과거 선박용품 창고로 사용된 공간을 리모델링해 높은 층고와 배를 연상케 한다. 바다와 파도, 기호의 흐름을 시각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서울 금산갤러리에서 열린 ‘Cast a Spell’에서 시도된 ‘빛과 음의 결합’을 더욱 심화해 선보여 기대를 모은다. 시각·청각·촉각이 뒤섞이는 다층적 감각의 현장을 만들어내 언어 이전의 원초적 감각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프랑스 낭트 전역 한국의 자연·예술로 채우다

제12회 ‘한국의 봄’ 축제 개막 내달 1일까지 낭트 일원서 열려 전시·공연·체험·디지털콘텐츠 등

한국의 자연과 예술을 주제로 한 축제가 프랑스 서부의 문화도시 낭트에서 펼쳐진다.

14일 개막한 제12회 ‘한국의 봄’ 축제가 다음달 1일까지 19일간 프랑스 낭트 전역의 주요 문화 공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주·무등산·나주 등 국내 지역성과 자연미를 예술적으로 조명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소개한다.

행사는 국제교류재단, 코스모폴리스, 스테레오룩스, 샬폴로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기획했다.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정서와 미감을 프

랑스 대중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시 ‘제주 바다와 함께 살다’에서는 해녀들의 삶과 생태를 주제로 김형선 작가의 인물 사진과 정상기 작가의 영상 작업을 감상할 수 있다.

프랑스감독 장 줄리앙 푸스는 ‘올림’을 통해 제주 해녀와 피레네산맥의 여성 농부들의 삶을 병치하며 자연과 여성의 생명력을 조명할 전망이다.

무등산을 주제로 한 전시에는 김옥렬, 최진경, 전하는 작가가 참여한다. 10년간 같은 장소에서 활영한 무등산의 아침 풍경을 통한 사유, 산행의 감각을 색채로 표현한 회화, 조선 정원 소재원을 모티브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나주는 천연염색 도시로 참여한다. ‘풀, 햇빛, 바람을 입다’ 전시를 통해 쪽

염색의 생태적 가치와 미학을 소개하며, 염색 시연과 현대 섬유 예술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공연·체험·디지털 콘텐츠까지 다층적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린다.

공연 부문에서는 제주 기반 예술단체 ‘더 풍낭’, 국악 퓨전 밴드 ‘신노이’, 타악기와 전통음악 기반의 ‘삼인동락’이 참여한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두 편도 상영되며 김옥렬 작가의 무등산 사진전도 마련된다. 또 전통 발효음식과 돌맞이 문화 체험, 천연염색 워크숍 등 교육·체험형 콘텐츠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 기업 문화토리는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 ‘호수야 놀자’를 낭트의 순천공원에 구현해 관람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자연과 문화유산을



제12회 ‘한국의 봄’ 축제가 14일 개막해 다음달 1일까지 프랑스 낭트 전역의 주요 문화 공간에서 열린다. 사진은 최진경 K-컬처 국제교류센터 대표. 낭트 한국의봄협회 제공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낭트 지역 초등학교 대상의 한국 공예·애니메이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오는 24일에는 ‘K-POP 월드 경연대회’가 스테레오룩스에서 개최된다.

한편 지난 2013년 첫선을 보인 ‘한국의 봄’은 12년간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 확산

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한불 문화 교류 행사다.

낭트 한국의봄협회 관계자는 “축제를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예술교육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 기자

조선대 미술관, ‘시선의 확장’展 개최…캠퍼스를 예술로 재해석

30일까지 재학생 56명 참여 회화·입체·미디어 등 40여 점

조선대학교 미술관이 조선대 캠퍼스를 예술적 시선으로 재구성한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일상 속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감성을 입힌 이 전시는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 시선과 창작 역량이 어우러져 주목을 끈다.

조선대 미술관(관장 조운성)은 오는 30일까지 미술관 전시실에서 기획전 ‘시선의 확장: 캠퍼스의 재구성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대 미술대학 재학생 56명이 참여, 회화·입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총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시선 △확장 △재구성이라는 3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전공별 창작 방식에 따른 개별적 심화 작업과 장르 간 융합 작업이 동시에 펼쳐진다.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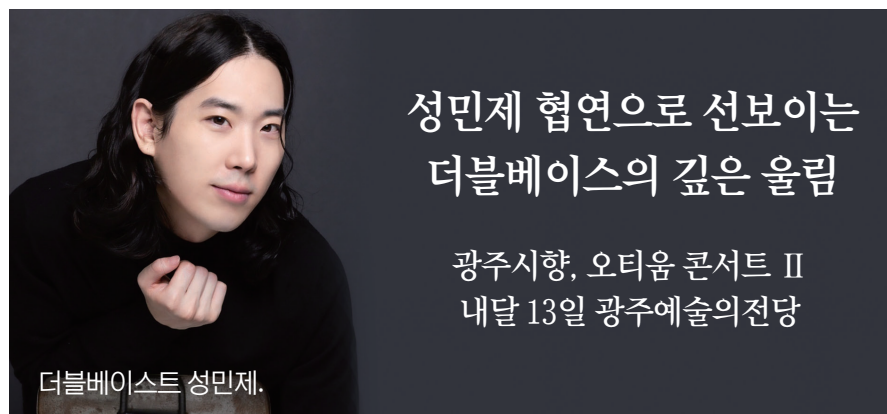


학생들은 본교의 대표적 풍경과 건물, 숨겨진 일상 공간을 재해석해 조형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공간과 감정, 시대 흐름을 엮어낸다.

조운성 조선대 미술관장은 “학생들이 조선대라는 공간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녹여낸 이번 전시가 캠퍼스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14일 프리오픈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와 도슨트 관련 문의는 조선대 미술관 학예연구실(062-230-7832)로 하면 된다.

한편 조선대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미술관 콘텐츠 활용 지역 전시 지원’ 사업에 선정, 오는 9월 보성군립 백민미술관에서 소장품전 ‘Rebirth: Hidden Hitchhiking’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이를 통해 지역 미술 생태계의 확장과 시각문화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성민제 협연으로 선보이는 더블베이스의 깊은 울림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II 내달 13일 광주예술의전당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 기획연주회 ‘오티움 콘서트’의 두 번째 공연 ‘Double Bass’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향의 대표 기획공연으로 꼽히는 오티움 콘서트는 올해 ‘악기’를 주제로,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악기를 조명한다. 단순한 연주를 넘어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악기의 구조와 음악적 역할을 소개해 관객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더블베이스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지휘와 해설은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 협연자로는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사진)가 나서 더블베이스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을 생동

감 있게 전달한다.

공연은 쿠세비츠키의 ‘더블베이스협주곡(S. Koussevitzky, Double Bass Concerto)’으로 시작된다. 이 곡은 더블베이스의 독창적인 음색과 표현력을 극대화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공연의 마지막은 말러 교향곡 제1번 중 3악장과 2악장으로 장식한다. 교향곡 속 더블베이스의 중추적인 역할과 감정선을 강조하며, 관객에게 악기의 예술적 깊이를 전달 예정이다.

이날 협연을 맡은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제는 클래식과 재즈를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주목받아 온 연주자다.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S석 2만원, A석 1만원. 박찬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

